

MS, AI 비서 확장도구 속속 공개

재무팀 업무량 1/6 수준으로 경감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

반복작업·업무단계 간소·자동화
하반기 코파일럿 통해 무상배포
엑셀 등 소프트웨어와 연계 활용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월 예고한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AI) 비서 코파일럿(Copilot)의 확장 도구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미 타기업이 선점한 영역까지 아우르며 개발, 출시 되는 코파일럿 확장 도구들이 향후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일(현지시간)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를 미리보기 버전을 공개하고 재무용 코파일럿 챗봇을 통해 자사 재무팀의 업무량이 1/6 수준으로 경감했다고 밝혔다. 포 파이낸스는 하반기 중 코파일럿을 통해 무상 배포 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는 반복적인 재무 작업을 간소화 하고 업무단계를 자동화하며 자금 흐름의 시각화를 제공하는 재무 업무용 생성형 AI 도구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포함돼 기업용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엑셀, 아웃룩, 팀즈 등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이내믹스 365, SAP 등 ERP 시스템과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찰스라마나마이크로소프트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총괄부사장(CVP)은 "회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부서는 더욱 전략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금융 전문가 62%가 데이터 입력 및 검토 주기의 힘든 과정에 관여 있다"며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는 재무 작업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인공지능 비서 코파일럿의 확장 프로그램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의 시각화 자료를 발표 중인 모습. /MS

간소화하고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재무가 비즈니스에 조언과 통찰력을 제공해 그들이 더 많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내에서 이루어진 테스트에서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는 소속 2000명의 직원이 매주 1~2시간씩 소모한 재무수치 비교 조정 작업을 매주 10~20분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해당 작업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재무팀이 수행하는 일상 업무다.

현재 글로벌 재무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은 허브스팟(HubSpot)과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선점 중인 상황이거나 코파일럿을 통해 포 파이낸스가 무료 배포되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생성형 AI를 접목한 자동 보고서 출력 등을 개발 중이나 포 파이낸스와 관련한 입장은 따로 표명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일에도 공식 블

로그를 통해 윈드라이브용 코파일럿 기능을 공개했다. 15테라바이트 이상 용량을 제공하는 윈드라이브 특성상 사용자는 필요한 파일과 문구를 찾기 위해 검색에 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코파일럿은 파일 확장자와 데이터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빠르게 검색 및 요약, 내용 추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계 관계자는 코파일럿과 관련해 "단순히 MS가 OS시장에서 갖는 점유율과 비용 등을 토대로 코파일럿 관련 툴들이 가질 시장 위력을 추정하기란 어렵다"면서 특히 업무용 SW의 경우 각 기업이 맞춤형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비영어권 시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목할 점은 MS가 현재 오픈AI의 최대 투자 기업이자 동시에 생가 생성형 AI 기술 선도 기업으로써 보여줄 AI 기술"이라며 "그동안 MS가 공개한 많은 기술과 SW가 업계 표준화 한 만큼 코파일럿 관련 도구와 이들의 결과물이 향후 표준화 할지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표 '층간소음 저감' 고성능 몰탈 개발

물 부어 바로 사용... 2종 출시

삼표산업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바닥구조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몰탈을 개발했다.

몰탈은 일반 시멘트와 달리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설 자재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향후 현장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고성능·고밀도 몰탈 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삼표산업은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재료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뛰어넘는 저감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고성능 몰탈은 기존 바닥구조에서 기포 콘크리트 층을 없애고 몰탈 층의 두께를 강화(기존 40

mm→70mm)한 제품이다. 물을 흡수하지 않는 완충재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완충재 위에 몰탈을 직접 시공하면 일반 몰탈의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고성능 몰탈의 경우 물이 분리되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균열 저항성이 우수하고 견고한 마감이 가능하다.

고밀도 몰탈은 밀도가 높은 골재를 사용해 단위 면적당 몰탈의 밀도를 증가시킨 제품으로, 기존 몰탈을 대체해 시공(40mm)하거나, 몰탈 층의 두께를 증가(70mm)시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몰탈은 콘크리트 분야에서 삼표산업만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로 층간소음 저감과 시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일렉트릭가 지난 설 연휴 충전난 해소를 위해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서울방향)에 설치한 임시 전기차 충전소 전경. /SK일렉트릭

SK일렉트릭, 누적충전 1000만kWh 돌파

전국 61개 고속도로에 198기 구축

SK일렉트릭 전기차 충전기로 전기차가 6000만km를 더 달렸다.

SK일렉트릭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전기차 1000만kWh 누적 충전량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2월까지의 1만 200만kWh다. 전비를 5km/kWh로 계산하면 6000만km를 달릴 수 있는 수준이다.

SK일렉트릭은 전국 61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198기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10월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구축' 1차 사업공모에 사업자로 선정 후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6개월만에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SK일렉트릭은 빠른 충전속도를 장

점으로 꼽았다. 52기가 350kW, 146기가 200kW 용량이다. 350kW 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아이오닉6 기준 18분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한 속도다.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가 대부분 7kW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50배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충전기 관리 상태도 호평을 받았다. SK일렉트릭가 지난해 '2023 SK일렉트릭 하이웨이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속도로 충전소를 포함한 표본 조사 결과, 정상 가동률 99.4%로 집계돼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SK일렉트릭은 충전기 관제시스템에 충전 불가 상태로 감지되는 경우 24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조치하는 전담 관리팀을 운영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인터배터리 2024' 참가

삼성SDI '초격차 기술' 배터리 라인업 선보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 ASB 공개
9분만에 8%→80% 충전기술 발표
20년 초장수명 배터리 계획 '주목'

삼성SDI가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 로드맵과 초급속 충전, 초장수명 등 배터리 '초격차 기술'들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SDI는 오는 6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해 전고체 배터리 리더십

을 공고히 하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SDI는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900Wh/L ASB(All Solid Battery)의 양산 준비 로드맵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한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ASB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의 위험성이 적고 주행거리가 길어 배터리 업계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배터리이다.

업계 최초로 9분 만에 8%에서 80%까지 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도 발표한다. 회사는 리튬이온의 이동경로를 최적화하고 저항을 감소시켜 9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6년 양산 목표이다. 해당 기술은 기존 P5 배터리 대비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년간 사용 가능한 초장수명 배터리의 2029년 양산 계획도 공개 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 '이차전지소재 풀 벨류 체인' 공개

소재 원료생산 단계부터 소개

포스코그룹이 '인터배터리 2024'에서 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인다.

포스코그룹은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포

스코홀딩스 주관으로 포스코, 포스코인터네셔널, 포스코퓨처엠을 아우르는 그룹 이차전지소재 풀 벨류 체인(Full Value Chai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그룹을 대표해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했지만, 올해부터는 포스코홀딩스

주도로 이차전지소재 원료생산 단계부터 소개하며 기존보다 한층 더 영역을 확대했다.

포스코그룹은 일단 올해 부스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0% 넓은 360㎡로 늘렸고, 그룹 이차전지소재 풀 벨류 체인의 구성과 흐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원형 구조의 모형과 영상용 미디어월을 전시관 중앙에 핵심 전시물로 배치했다. /양성운 기자 ysw@

BMW, PHEV 세단 '뉴 530e' 공식 출시

최고출력 63%↑... 상품성 끌어올려

BMW코리아는 뉴 530e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뉴 530e는 PHEV 세단으로, 이전 세대보다 상품성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최고출력을 63% 높인 184력 전기모터에 190마력 트윈터보 터보 엔진을 조합해 최고출력이 299마력에 달하고, 전기모드 주행거리도 18.7kWh 용량 고전압 배터리로 73km나 달린다. 기술린 엔



BMW 뉴 530e.

진을 더해 최대 751km까지 주행 가능하다. 연비는 15.9km/L이다. /김재용 기자